

화순군 '인구 늘리기' 팔 걷어붙였다

화순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화순군 인구는 6만6040명(2만9307세대)이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 6만6772명(2만9430세대)에 비해 6개월 사이에 732명(123세대)이 줄었다. 화순군 전체 인구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화순읍도 같은 기간 동안 4만927명(1만5875세대)에서 4만463명(1만5758세대)으로 464명이 감소했다. 화순군 역대 최고인구는 1967년 12월 15만1637명이고, 최근 20년간 최고 인구는 2002년 12월 7만949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인구늘리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최근 6개월 730명 또 줄어
6개 분야별 종합대책 수립
주소갖기 운동 등 적극 추진

정하고 6대 분야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한다. 기획감사실이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을 총괄하기로 했다. 군은 ▲내교장 주소 갖기 운동 ▲민원서비스 제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행복한 군민 만들기 ▲교육 및 지원대책 마련 ▲지역 이미지 홍보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매력있는

'명품 화순'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군 특성에 맞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분야별·실과소별 추진시책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8월중 인구늘리기 종합 대책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을 비롯해 기념품·관광지·특산물·거리·전통시장·숲·교육·축제·휴양 등 10대 분야별 명품화를 통해 '명품화순' 군정의 시책을 가시화하고, 복지·건강증진·안전·문화·생활운동 등 5대 군민행복 시책을 추진, 매력 있는 명품화순을 만들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

획이다. 이와 관련, 구충근 군수는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인구 10만 의·생명 복합도시 화순'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은 "정주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데도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인구늘리기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해 화순을 '아시아 백신 허브'로 육성하고,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데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화순군 우봉들소리 보존회(회장 홍양희) 회원들이 지난 18일 마을을 들녘에서 우봉들소리를 시연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 들녘에 울려 퍼진 우봉들소리

전남도 무형문화재... 풍년 기원 노동요 네 마당 공연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우봉들소리 공연이 지난 18일 화순군 춘양면 우봉마을 들녘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박봉순 부군수와 한복을 입은 주민들이 '남도 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다 2013년 8월 5일 전남도 무형문화제 제54호 지정됐다. 보존회는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010년부터 해마다 농사를 지으며 공연을 펼치고 있다. 박봉순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소중한 무형문화재를 보존해 전승하고자 하는 우봉리 주민들의 의지는 민속과 국악 진흥발전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양희 보존회장은 "우봉마을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고, 우도농악 가락이 스산한 가을이 있는 마을"이라며 "앞으로 들소리 공연을 전승·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우봉 들소리는 벼농사를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로 당시 시대상을 풍자한 대목이 많아 작품성이 뛰어나다. 특히 전남도에 주관하는 '남도 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다 2013년 8월 5일 전남도 무형문화제 제54호 지정됐다. 보존회는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010년부터 해마다 농사를 지으며 공연을 펼치고 있다. 박봉순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소중한 무형문화재를 보존해 전승하고자 하는 우봉리 주민들의 의지는 민속과 국악 진흥발전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양희 보존회장은 "우봉마을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고, 우도농악 가락이 스산한 가을이 있는 마을"이라며 "앞으로 들소리 공연을 전승·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KTX 장성역 정차 청신호

郡 "국토부 긍정적 답변"

장성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TX 장성역 정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성군은 "유두석 군수가 최근 손병석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2016년부터 운행되는 수서발 호남선 KTX 개통 때 현재 운행 중인 '서울 용산~서대전~익산(구 KTX 노선)' 구간 일부를 장성역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KTX는 그동안 장성역에 하루 12회 정차했으나 지난 4월 '충북 오송~광주 송정' 신규 구간 개통으로 KTX 장성역 경유가 이뤄지지 않아 역세권 상가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수서발 KTX 개통시 '서울 용산~서대전~익산' 노선을 장성역까지 연장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유 군수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고, 구 KTX 노선 운영을 반대했던 의원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노선 연장에 대한 지역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유두석 군수는 "현재 단 한편의 KTX도 장성역을 정차하지 않아 기존에 KTX를 자주 이용하던 군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대전과 호남권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와 국가 위시기 상무대 병력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서도 장성역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담양 도로변 무궁화 만개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봉산면으로 가는 도로변에 무궁화가 활짝 폈다. 나라꽃인 무궁화는 7~10월에 100일 동안 계속해 화려한 꽃을 피운다. (담양군 제공)

공정률 30%...장성군 장애인 복지관 내년 3월 개관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조감도)이 내년 3월 개관한다. 장성군은 장애인의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장성을 기산리 일원 부지 5420㎡에 지상 2층(건축면적 1504㎡)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다. 최근 복도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는 등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3월에 개관할 방침이다.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물리 치료실과 운동 치료실, 미술 치료실, 직업 재활실, 주간 보호

실이 들어선다. 또 여가선용을 위해 목욕탕, 세미나실 등도 갖출 예정이다. 군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인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와 재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성군은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연구 및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등 민선 6기 들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세 일 글

"대나무바람회 성공 견인차 되겠다"

홍성일 담양부군수



"지역 최초 국제행사인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바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부임한 홍성일(57) 담양군 부군수는 "소득 3만달러, 인구 7만 명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이 빠른 시간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군 전 공직 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양군과 전남도의 가교역할과 함께 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

시로 방문해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도 출신인 홍 부군수는 진도고와 남도대학(관광학과)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8년 공직에 입문한 뒤 전남도 경제통상실 생물산업담당, 분권이양담당, 건설재난관리국 토지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40~50년생 50만주 식재됨
현재재료 가격이 주당 3000원 정도 거래됨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1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45천(보1억 월68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주택 매12억(보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총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주주거거지 대지 945㎡ 매 27억
- 마륙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 010-5536-0382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은행(ATM), 편의점, 소매점	임대완료
2층		잔여 1201㎡
3층		1629㎡
4층		1267㎡
5층		1400㎡
6층		임대완료
7층		1400㎡
8층	은행, 보험, 증권 기타사무실	1383㎡
9층		잔여 591㎡, 307㎡
10층		1342㎡
11층		1307㎡
12층		임대완료
13층		임대완료
14층		임대완료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